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8. 10. 19.(금) 총 3매(본문2)
담당 부서	공공주택지원과	담당자	• 과장 김영혜, 사무관 신익승, 주무관 전성이 • ☎ (044) 201 - 4533, 4528
보 도 일 시		2018년 10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18.(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집 팔고 노후 준비하세요...19일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매입공고 **9억 이하 1주택 65세 ↑ 대상...10~30년 사이 분할지급 가능내달초 접수 시작**

□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舊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 (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0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2개월)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 공공주택사업자(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또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하여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19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신익승 사무관(☎ 044-201-45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 청년의 내일을 준비하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어르신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주택)을
LH에 팔면,

✓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부부 중 1명 이상)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 한정

어르신은 주택매각대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고,

✓ 매각대금 : 지급기간 선택(10~30년) 가능

노후주택은
어르신과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됩니다.

✓ 리모델링 :
1호의 노후주택

8~10호의
공공임대주택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으로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세요!

노년의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공간

어르신과 청년의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